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81
----------	------

2021년 11월 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0. 15. 김인제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1. 10. 20.

다.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1년 11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환된 방역대책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요구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회복,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종합 민생안정대책을 수립·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 선언하였고, 약 2년여 간 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치명률이 낮아짐에 따라 금년 7월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년 10월 28일기준 총 358,412명으로 최근에도 일평균 약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총인구대비 백신 접종률이 72%(18세 이상 기준 83.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1.10.28.기준)

(단위: 명)

구분	신규확진	확진자 누계
계	2,111	358,412

<표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2021.10.28.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일 누계 (A)	신규 접종 (B) ¹⁾	누적 접종 (A+B) ¹⁾	인구 ²⁾ 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40,894,082	76,802	40,970,884	79.8	92.0
접종 완료	36,715,234	255,616	36,970,850	72.0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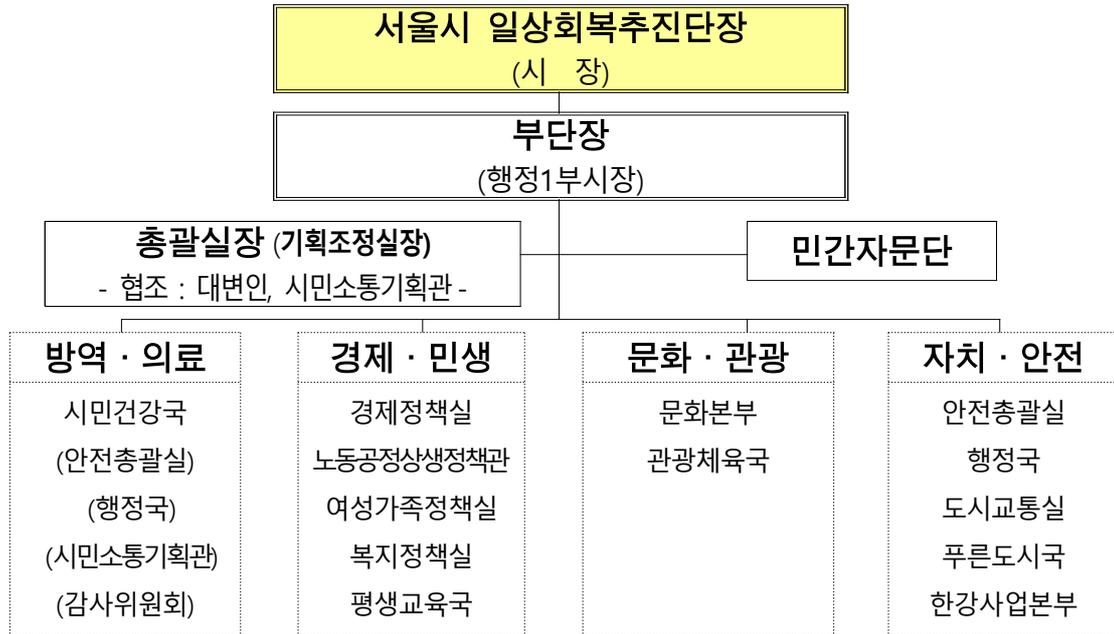
- 1) 안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세계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¹⁾
- 이에 따라, 국내의 높은 예방접종률과 낮은 치명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붙임.1)를 출범시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음.

1) 『2020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임(붙임.2).

<그림 2>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 서울시 차원의 ‘일상회복 추진단’은 시민들의 일상회복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며, 첫째, 단계별 일상회복 전략의 방역현장 실행관리, 둘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우선순위의 논의, 마지막으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의제와 연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발굴·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인, 노동 취약계층 등의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방역·의료, 경제·민생, 문화·관광, 자치·안전 등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역의 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가 일상회복을 위한 여러 분야 중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 수립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2876)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했을 때, 2개의 특별위원회가 동시에 구성·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중복과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동범위와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8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인제, 권영희, 김제리,
김희걸, 노승재, 서윤기,
여 명, 이병도, 이준형,
이태성, 최 선 의원(11
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위드 코로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환된 방역대책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체계의 운영과 적극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 등 우수한 대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과 장기화로 인해 소비 침체, 소득불균형 심화, 소상공인의 폐업과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 서울시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격변하는 산업·경제 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